

중세 사회질서체제의 형성과정: 고려 태조 왕건과 그의 시대상을 중심으로

강 희웅
(미국 하와이 대학교)

문제설정: 이 논문은 羅末麗初에 일어난 우리 사회질서체제의 변동과 그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형성되는 신분체제의 재편성과 그 이념적 기반의 변천과정의 실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궁극적으로는 신라 골품체제의 와해과정에서 새로이 형성되는 고려의 본관(假稱: 姓品)체제를 중세기의 우리사회 질서체제로 파악하고 그 형성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된다.

I. 사회질서체제의 地緣的 구성요소의 변천: 본관 (假稱: 姓品) 형성과정

新羅시대의 사회 질서체제는 골품제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그 골품적 권력체제의 地緣的 기반은 신라귀족의 본래 주거지인 王京(慶州)에 국한 되어 있었다. 신라귀족들이 신라의 국가적 발전과정에서 그들의 공동체적 인식을 原住居地의 자연적 연계성에서 배양했다는 것은 다른 고대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王京의 (聖,眞)骨 귀족과 六部의 頭品 귀족의 출신지역이 그 신분기반의 한 중요한 요소이었다는 것은 수긍이 간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그들 귀족이 공유한 공동체적 이익과 그 사회 문화적 유대감이 그 사회의 질서체제의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것이 자연적 기본구성 요소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라의 京位와 外位の 제도적 구분과 차등에서도 볼 수 있으며, 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자연적 구성요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武田 幸男, 1966, 朝鮮學報 41, pp.1-51.)

그 밖에도 신라의 국토 확장과정에서 영입되어 통일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된 本伽倻나 고구려 출신의 外來 귀족들에게 신라가 수여한 骨品階位가 그들이 歸屬 전에 누리고 있었던 본래의 官階에서 약간 下等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신라의 사회질서체제 구성요소로서의 지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傍證해 준다. 이들 歸屬貴族들에게 주어진 骨品階位로만 보면, 신라 귀족으로 손색없이 편입되어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原 신라 六部 출신의 골-두품 귀족들과는 그 특권의 구체적 배당과 行使권한에 있어서 差等이 있었다는 것은 사료에서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本伽倻의 병합(법흥왕 19년, 532 CE)이후 이루어진 소위 新金氏 一家의 眞骨化이다. 이것은 그들이 신라 왕경으로 이주한 후에도 신라의 왕좌에는 오르지 못하는 진골신분의 가문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 사회질서 체제하에서는 혈연과 더불어 원래의 출신배경, 즉 지연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했던 골품제의 지연적 구성요소도 신라의 국토 확장으로 인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이런 변화의 촉매제적 역할을 하는 것이 小京과 州의 설치로 비롯되는 신라의 왕경 귀족들의 徙民정책이다. 신라가 “國原小京[忠州]에 王京[慶州]의 [眞]骨 子弟와 六部 豪民을 徙住시켰다”는 것이 현존 사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이 眞興王 19년(558년 CE)이다. 그러나 진흥왕은 그 전에 (진흥왕 12년, 551 CE) 이미 娘城(후 西原小京이 된 淸州)에 가서 지방사찰도 겸한 巡狩도하고 또 그곳에서 사는 이름난 음악인들(于勒과 그 제자)의 가야금 연주를 감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 시대의 삼국 접경지대에서 활동을 많이 한 흔적이 있다. [金 甲童,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90, pp. 26-28, 45, n.5.) 새로 편입된 영토의 보다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신라 왕경의 중앙귀족들의 지방분산은 불가피 했을 것이고, 그 결과 통일 신라의 小京과 州의 설치는 왕경을 주거지로 갖고 있던 중앙귀족의 지역적 확산을 재촉했다.

이러한 확산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중앙귀족의 지방이주는 결과적으로 골품제도의 지연적 요소에 중대한 변천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다. 移徙로 인한 분산이 항구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때에 골품체제의 지연적 기반의 다양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文武王 14년(674 CE)에 통일신라의 五小京과 九州로 王京의 진골귀족을 出居시키고, 그들이 그곳에서 누리는 外位の 官名이 [설사] 王京의 그것과 달라도(다시 말하자면, 왕경의 京位만이 가질 수 있는 官名이 아니고, 外位를 가진 자가 누리는 官名이라 해도), 그들의 官等은 왕경의 京位[官等]에 준했다고 하는 기사이다.[三國史記, (東京: 學習院 東洋文化研究所, 1964) 40:17b.]

이 기사가 알려주는 것은 지방으로 내려간 왕경 귀족에게 그들이 왕경에서 누리던 고유의 특권을 당초에는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지방에 이주한 후도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동등한 신분을 지니는 중앙귀족이 신라의 국가적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적 군사 혹은 행정상의 특수 임무로, 혹은 사회 문화적 가치관의 지역적 보편화를 위한 필요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주하는 마당에 그들이 그때까지 관습적으로 향유한 중앙귀족 고유의 특권을 포기 혹은 감소 당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시키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관으로서의 官名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수여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官等은 왕경에서 누리던 것과 동등하게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암시하는 변화의 조짐은 매우 중요하고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 중요성은 다름 아닌 신라 사회질서체제의 구성요소로서의 지연성의 변천이 시작한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라 왕경의 중앙귀족만이 그 이전까지 누리고 있었던 항구적인 지연적 특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경의 중앙 귀족이 관습적으로 소유하는 지연과 혈연적 요소는 他地方 출신 혹은 他血統의 소유자들이 누릴 수 없었던 독점적이고 인습적인 것이었는데, CE 674년을 기하여 왕경출신 귀족들이 타지방에 이주하여 거기에 정착한 후에도 그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타지방출신의 귀족에게도 그러한 특혜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타지방출신 귀족이 왕경 권력형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문호개방은 골품제도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地緣性 자체의 변천을 시사하는 것이고, 이러한 지연적 요소의 변화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혈연적 구성요소의 변천과 더불어 신라골품체제 구성요소의 근본적 와해를 초래하는 가능성이 생겼음을 암시 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환언하면,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결과적으로 신라 골품체제의 자연적 구성요소 자체가 타지방으로 확산되고, 또 이에 수반되는 地緣的 다양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 초부터 나타나는 소위 本貫(假稱: 姓品)제는 과거 舊 신라 왕경의 地緣性만이 독점했던 신분적 특혜가 이제는 他 地域, 특히 정치 군사적으로 새로운 중요성을 지닌 小京과 州의 地緣性으로까지 연장되어 이양되고 확산되어서, 점차 지방토호들의 貴姓이 중앙 貴族姓氏와 동등한 사회신분층으로 부상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이렇게 地緣性이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서 아래에서 언급되는 다른 요소와 연계 혼합되어 점차 새로운 사회신분체제로 부각되는 것을 이 論考에서 假稱 姓品(通稱, 本貫)制라고 호칭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한가지 점은 이러한 제도가 고려 초에 법제화되어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사하는 단편적 사료가 산견된다는 사실이다. 고려 초에 지방의 실력자로 등장하는 堂大等を 戶長으로 개칭하고, 그 數는 千丁 이상의 州, 府, 郡, 縣에 최고 8명을 두었다던가 [成宗 2년(983 CE); 顯宗 9년(1019 CE)], 혹은 고려의 東京(舊 신라 王京인 慶州)의 堂祭를 戶長으로 인명하고, 그 수도 8명으로 감소시켰다고 하는 사실들이 바로 그것이다. [慶州戶長先生案에는 “光宗朝”라고 되어있으나, 同 6년(955년 CE)으로 추정; 金 甲童, 1990, p.51, n. 83.; 成宗 5년(986년 CE).]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역사적 사례를 찾기에는 불행히도 우리의 사료는 이미 너무 상실되어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납득할만한 추론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事例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예를 우리는 고려 태조 王建(877-943 CE)과 시대를 같이한 옛 신라 귀족출신의 지방실력가들의 家系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한 예가 舊 왕경 진골귀족출신의 후예로 생각되는 靑州 金氏 家門의 金 言規, 金 勸謙, 金 兢律 등이다. (金 周成, “高麗初 靑州地方의 豪族” 韓國史研究, 61-62 合輯.) 다른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이들은 신라 文武王 14년(674년 CE)에 西原小京, 즉 후일의 靑州로 徙住된 신라 중앙귀족의 후손들이었다. [金 甲童, 羅末 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서울: 高大 民俗文化研究所, 1990), pp. 47-48.] 이들 가계를 이주시킨 정책의 이면에는 三國 鼎立時代부터 靑州지방이 三國間의 지리적 요충지였고, 통일신라 이후도 군사, 행정적 要地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金 甲童, 1990, pp.26ff) 그러므로 CE 9세기에서 10세기로 접어드는 과도기에는 이들의 후손들이 이미 토착화된 지방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上同, pp. 47-55.)

청주 金氏 가문의 지방세력으로서의 실력을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는 사료가 현존하는 금석문에 나타난다. [朝鮮金石總攬, (京城: 朝鮮總督府, 1919) 上, 龍頭寺幢竿記) 고려 초 청주에서 으뜸가는 집안에 틀림없었던 이 金氏 가계는 이 고을의 영도자격인 堂大等を 독식하다시피 하고, 非 新羅系 지방호족가문 출신인 王建이 세운 고려정권에서도 고위 중앙관리로 등장하고 있다. (金 甲童, 1990, pp. 48, 26-55.) 청주는 땅이 비옥하여 그곳 사람들 가운데는 호걸이 많았다는 當代의 금석문이 전하듯이(上同, p. 38.), 그러면 이곳에 정착한 구 신라 왕경 귀족가계 출신의 후예들은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 정착지에서 토착화하였을까? 이들의 토착화 과정에서, 특히 자연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로 그들의 脫 王京化 하는 과정이고, 다음으로는 정착지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同化過程이 이끌어내는 同質化 現像이며, 끝으로는 이 동질화 현상이 창출하는 그들의 集團的 同一利益體의 형성이다.

王京에서 지방으로 徙居된 구 귀족들의 脫 王京化 현상은 우선 지리적인 거리가 자아내는 변질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방에 정착한 후에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러한 변질은 상대적으로 짙어진다고 본다. 왕경과 이주한 지방정착지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변질은 쌍방에서 이중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정착한 현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질이고, 이차적으로는 王京 內에서 자체적으로, 즉 徙住로 이탈된 지방의 구 왕경 귀족출신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변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어느 사회이든 간에 그곳의 문화, 경제, 그리고 정치적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의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속도와 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유동적으로 주어진 조건하에서 변화되어 나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위의 사주된 귀족들이 떠난 후에도 왕경에서,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사주된 지방 정착지에서도 서로 별개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보니, 떠난 舊 王京 귀족에게는 왕경 이탈감을 가중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이들 구 왕경 귀족출신들이 지니고 있는 옛 고향, 즉 왕경에 대한 노스탈지아(nostalgia)를 더

증폭시키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옛 왕경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변화된 왕경에 대한 탈 왕경화 현상을 재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착지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구 왕경 귀족출신들의 세대교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nostalgia도 변질시키면서, 동시에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그들에게 탈 왕경화를 재촉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정착지에서 일어나는 동화과정은 현지에서 야기되는 일종의 적응과정이라고 하겠다. 특히 지방으로 이주된 왕경귀족의 第一世代에게는 이것이 필요에 따른 선택이었지만, 차세대부터는 선택이 아닌 자연적 귀결이고, 성장과정에서 자연히 일어나는 문화적 동화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장지에서 취득하는 말씨, 즉 그 지방의 방언의 습득으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체득하는 표현,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동질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성인이 되면서 심화되는 그 거주지에서의 집단생활 참여가 만들어내는 지방 利益과 그로 인한 동질화 현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본다. 이상에서 언급한 토착화 현상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는 사례로는 平山의 朴直胤 家門과 溟洲의 金思仁 가문 그리고 같은 곳의 朴昌道 一家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에 관해서는 다음 제2장에서 언급하는 사회질서체제의 혈연적 구성요소의 변천과 관련하여 취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사 원래 왕경 출신이라고 해도 일단 지방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면, 세월이 흐를수록 그곳이 그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고, 그럴수록 자기 가문의 이익과 移住地의 지방이익에 밀착하게 된다는 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착한 이주민은 세대가 바뀔수록 토착화하는 현상이 더 질게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있을 수 있는 지방의 구 왕경 귀족출신의 후손들이 가지는 왕경 귀족에 대한 이상화와 환상적인 동경, 내지 애착감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흐려지고, 이와 병행하여 탈 왕경화와 이에 따른 그들의 토착사회 문화의 수용현상이 빨라진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현상이 재촉하는 동질화가 더욱 가속화하고, 이에 따르는 그 지방에서의 토착화, 동질화 현상도 구 귀족출신들의 지역적 문화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또 탈 왕경화 현상을 더욱 촉진 시킨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II. 사회질서체제의 血緣的 구성요소의 변천: 새로운 通婚圈의 형성

羅末麗初의 과도기에 일어나는 사회질서의 변화과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흔히 간과되어 온 것은 지방으로 이주한 舊 王京출신 귀족의 婚姻慣習으로 인한 혈연적 요소의 변천과 이러한 변화가 사회 문화적 촉매제로 작용하여 조성되는 그들의 토착화 현상이다. 특히 duolocal 혼인관습이 자아내는 妻家-外家로의 歸屬現像이 토착화를 촉진시켰고, 이에 따른 脫 王京化 현상은 世代가 바뀔 때마다 가속화되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신라 신분제도의 기본 구성요소로서의 血緣관계, 즉 귀족들의 通婚圈문제와 연결된다. 주지하다시피, 신라 骨品制的 사회질서체제의 혈연적 구성요소는 원래 왕경(경주)의 골.두품귀족의 혈연적 순수성이 관습적인 族內婚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에 일어나는 왕경 귀족의 사민정책은 점차적으로 그들의 지방분산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분산이 정착화하면서 또 결과적으로 新羅末 高麗初에 보이는 구 신라귀족의 通婚圈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당대의 신분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는 한 예를 羅末麗初의 과도기에 일어나는 平山 朴氏 家門과 開城 王氏 家門간의 통혼관계에서 볼 수 있다. 이 시대에 활약한 平山 朴씨 家系는 그 이전의 어느 시기에 이미 신라의 북소경과 죽주(죽산)를 거쳐서 평주(평산)에 정착한 구 신라 왕경의 骨貴族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평산 박씨의 가계와 박 직윤의 아들 朴 智胤, 손자 朴 守卿(d. 964 CE, 광종 15년)과 朴 守文에 관해서는 이미 고증된 바가 있다. 예로 拙稿, “고려 혜종조 王位繼承亂의 新 解釋” *韓國學譜*, 제 7집 (1977, 여름) p.85f, n.60-61; 李 基東, “新羅 下代の 湏江鎮,” *新羅 骨品制 社會와 花郎徒*, (서울: 한국연구소, 1980) pp. 228f를 들 수 있다.] 이 朴氏 家系가 新羅 下代の 西北 國境 防衛網 湏江鎮의 최첨단 요새지인 平山(고구려의 大谷城, 신라의 永豐, 고려의 平州)으로 이주한 것은 CE 748년에 이곳 湏江鎮의 設鎮 이후이었으며, 그 후 어느 시기에 이 가문의 女人이 이 地方의 土豪로 부상하는 開城(松嶽) 王氏, 즉 王建의 할아버지와 혼인한 것 같다. 이 여인이 王建의 할머니 이었다는 사실과 또 그녀와 그 아들 王 隆 (龍建, 즉 王建의 父)과 함께 평산 박씨 가계출신 了悟禪師 順之가 住持로 있는 瑞雲寺의 施主(檀越, 즉 danapati)이었다는

사실은 [金杜珍, “了悟禪師 順之의 相論,” 韓國史論, 2 (1975), pp 82-83.] 이 지방에 정착한 舊 신라 귀족가문의 通婚圈이 확장된 一例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舊 신라 왕경귀족의 身分下向的 通婚圈 확장은 이들의 실질적 土着化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방 토호의 身分上向的 변천을 초래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라 王京系 진골출신 朴 直胤은 大毛達(고구려 將軍의 뜻)로 호칭될 만큼 그의 定着地의 토착세력과 유대관계를 굳히고 있었으며, 또 그의 아들 朴 遲胤은 그의 本據地 패강진을 西海沿岸으로 연결하는 禮成江 河川 交通의 요새지 松嶽의 村主이고 그의 外四寸인 王 隆과 때를 같이하여 金 弓裔의 진영에 귀순했다 것도 이러한 유대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朴 遲胤의 아들 守文과 守卿은 王 隆의 아들 建과 血友가 되어 후일 고려 건국에 헌신적으로 동참하였고, 고려 태조 王建도 그의 王妃로 한 가문에서 유일하게 평산 박씨 집안의 세 여인(박 수경의 누이, 딸, 조카)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유대관계는 앞서 말한 신라 왕경 귀족출신의 후예들이 그들의 지방 정착지에서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혼권의 확대를 가지고 온 산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혼권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구 신라 귀족가문의 신분적 하향으로 그들의 정착지역의 토착세력과 다방면으로 同質化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토착세력의 신분적 상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 마침내 이들을 모두 同一한 利益集團으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본다. 그리하여 고려 初의 姓品制(假稱)下에서 평산 박씨는 그들 고을 平州의 土姓 서열에서 一位를 차지한다.

구 신라 귀족후예의 지방 토착화와 통혼권 확대가 빚어내는 신분적 변천은 비단 패강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단편적이거나 이와 비슷한 것을 보여주는 또 한 예를 이 시대 禪門九山の 하나인 闍掘山派(도굴산파)의 開祖 신라 高僧 通曉大師 梵日(憲德王 2 년-眞聖女王 3 년, 810-889 CE)의 家系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범일의 할아버지 金 述元은 溟州都督을 지낸 신라 王京 귀족출신이었으나, 범일의 外家는 溟州(江陵) 지방의 토호가문 文씨 집안이었다. (金 甲東, 1990, pp.78f, n.100; 祖堂集, 17.) 이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범일의 아버지는 왕경 귀족출신의 아들이었으나, 범일은 당대의 혼인관습에 따라 그의 外家(아버지의 妻家인 土豪 文씨)집안에서 양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라의 신분세습제도가 下向性的 세습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비추어 보면, 범일이 그의 성장과정에서 명주의 토착세력의 가치관과 그것을 둘러싼 지방이익에 얼마나 물들이게 되었을지를 짐작케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그의 연고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후일 唐에 가서 구법을 마치고 돌아온 범일은 文聖王 9년(CE 847년)에 그 당시의 溟州都督 金公의 요청으로 명주에 嶺山寺를 건립하였고, 그 후 줄곧 이곳에서 住持로 40여년간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그가 명주와 맺은 인연을 모르고는, 왜 景文王(861-875 CE)을 위시하여 3대에 걸쳐서 國師로 모시겠다는 신라 국왕들의 간청도 그는 마다하고 80평생을 줄곧 이곳에서 전교 하면서 보내고 살았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溟州와의 짙은 연고를 가지게 한 단서를 제공하는 범일의 本家 江陵 金씨는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그리고 어떠한 사연으로 옛부터 동해안의 신라 地方行政과 군사적 거점인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을까? 현존하는 사료가 전해주는 江陵 金氏의 유래는 그 始祖로 전해지는 金 周元에 관한 기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金 貞淑, “金 周元 世系の 成立과 그 變遷” *白山學報*, 28 (Jan., 1984), pp. 147-194.] 惠恭王 13년(CE 777년)에 侍中이 되고, 그 후에 上宰로 신라 중앙정부에서 활약한 그는 武烈王 金 春秋의 6世孫으로 신라 王位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王京의 眞骨貴族이었다. 그러나 CE 784년에 宣德王의 뒤를 이어 왕위계승에 실패한 후 그는 溟州로 은퇴하였고, 그곳에 隱居한 그에게 元聖王은 삼년 후(787년CE)에 溟州郡王을 封하고, 명주를 위시하여 三陟 蔚珍까지 포함하는 廣範圍한 지역을 食邑으로 下賜했다. 이 下賜는 그가 명주로 은퇴한 후로는 왕위도 마다하고 사양한 것과 유관한 것으로 사료는 전한다 (상동, p.182.). 그러나 그가 왜 溟州를 隱居地로 선택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 이유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명주가 金 周元의 母鄉이라는 (p.157f, 169) 점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명주는 옛부터 신라의 對 高구려 및 말갈과의 접경지대의 軍事的 要塞地이고 또 한때 신라의 小京(善德女王代の 北小京)까지 되었던 신라의 何瑟羅 (또는 河西)州이다 (김 갑동, 1990, pp. 56-63.]. 이러한 곳에 金 周元의 아버지 金 惟正이 신라의 지방관으로 부임하고 있었을 때 그와 명주土豪 朴 昌道の 딸 (후일의 蓮花夫人이며, 元聖王의 어머니 昭文太后的 同母姉妹)과의 사이에서 周元이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주원의 할아버지 (聖德王 31년에 將軍으로 인명되고,

景德王 14년에는 上大等이 된) 金 思仁은 武烈王 金 春秋의 曾孫 (金 貞淑, 1984, pp. 154-5) 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당시 신라 귀족사회의 관행이었던 duolocal 혼인관습과 관련시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우리는 현존 사료가 직접 언급하지 않는 김 주원의 명주 음거의 더 근본적 이유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근본적 이유라는 것은 김 주원이 명주의 그의 外家에서 자라났을 가능성이다. 만약에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일이라고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신라 왕경 귀족의 지방분산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통혼권의 확대를 야기한 또 하나의 예를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통혼권의 확대는 더욱 심화되는 그들의 지방 토착화 현상을 촉진하고, 동시에 그들을 그 지방의 토착세력과 총체적으로 同一한 利益의 지방 社會的 集團으로 육성하는 과정도 엿보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김 주원의 명주 음거의 이유뿐만 아니라, 아직 밝히지 못한 다른 유관된 이유도 찾아낼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준다고 믿는다. 이러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한 예로 우리는 金 周元和 金 述元을 들 수 있다. 같은 신라 王系 자손이라고 보면서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가문배경과 인척관계를 그들의 母系家門을 통하여 탐색함으로써 더욱 폭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들과 이들 후손의 명주 在地勢力으로서의 서로 다른 활동관계를 밝히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김 갑동, 1990, p78f, n.101.)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시각이 王建時代에 맹주 제지세력으로 등장하는 王 (賜姓 前은 金) 順式과 王 (以前 姓 金) 乂간의 對 高麗 관계의 차이점도 (김 갑동, 1990, pp. 81-83.) 납득 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여기서 또 한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점은 신라 왕경에서 타 지역으로 분산된 후 그 지방에 토착했을 명주의 朴 昌道 家系와 같은 구 신라 왕경 귀족들이 그들의 정착지에서도 왕경 출신의 신라귀족과 계속 通婚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통일신라의 골품제 하에서 일어나는 신분적 변천에 그들이 한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가지는 二重的 通婚圈은 한편으로는 地方 在地 토호세력家門의 過渡期的 신분향상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경귀족들의 하향적 신분변천에도 기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새로운 통혼권의 확대는 간접적으로나마 지방에서 성장한 토착세력의 정치, 사회적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데도 일익을 했을 것이다. 後日 溟州의 金 周元 家系의 後裔로 알려진 王 順式의 家門과 王 父 家門의 중앙정계 진출은 이를 증명해 주는 실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은 또 羅末麗初의 과도기에 일어나는 신라 왕경 귀족세력의 지속적 약화에 편승하여 비약적으로 세력성장을 이루어, 드디어는 그들 지방세력이 신라왕경의 귀족세력을 능가하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을 밝히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後百濟의 李 甄萱 휘하의 신라 왕경 侵攻軍과 이를 견제하기 위해 급파된 王 建 휘하의 신라 왕경 援兵軍의 주력병력은 당시 이들 토착세력의 군사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자체의 土着勢力基盤을 소유하지 못한 泰封의 金 弓裔와 後百濟의 李 甄萱은 궁극적으로는 각각 자국내의 자생적 토착세력으로 인해 권좌에서 축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여러 자생적 토착세력에 의한 고려의 건국은 당연히 골품제적 族內 혼인권에 대신하는 새로운 고려의 가칭 姓品的 통혼권으로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고려초기 중앙 권력층의 새로운 통혼권 구성은 구 신라 골, 두품계 출신과 비 신라 귀족출신계 간의 통혼으로 인해 새로운 신흥권력층의 가문을 많이 탄생시켰다. 이것은 과거 신라 왕경의 (진)골계층에 의한 혈통의 순수성의 고집으로 인해 장 보고의 신라왕족 외척입적 시도가 실패한 것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현상이다. 동시에 그와 같은 통혼권의 확대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신분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자생적으로 발전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끝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을 결론적으로 다시 여기 설명한다면, 신라 골품적 사회질서 체제하에서 일어난 귀족의 혈연적 구성요소의 점차적 변천은 통일 신라 왕경 귀족의 지방분산으로 인해 야기되는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특수지방으로의 분산과 정착은 첫째 그들의 탈 왕경으로 골품제도의 지연적 구성요소의 변질을 가지고 왔고, 이와 동시에 그들의 통혼권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통혼권의 확장은 신라 귀족사회의 특이한 duolocal 혼인관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착지에서의 토착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토착화는 이들 구 귀족계 출신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방면에서 점차 그 지방의 비

귀족계 토착세력과 동질화를 촉진시켰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 지방의 재래적 토착세력과 동일한 이익집단으로 성장되어 갔다. 골품체제사회의 초기에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이러한 현상은 그 후기에는 광범위하게 왕경 외의 지방거점에서 왕경출신계 구 귀족들의 토착세력화 하는 현상을 출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토착화 현상은 신라의 골품적 옛 族內婚 관습과 구 골품귀족의 권력독점에 쐐기를 박았으며, 심지어는 골품제도의 총체적 와해를 촉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III. 사회질서체제의 理想的 구성요소의 변화: 이념적 변질과 개혁:

우리 나라 고대 王權을 뒷받침하는 政治的 理念에는 巫俗的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新羅 三姓의 始祖說話, 특히 朴赫居世의 건국신화에는 물론이거니와 후대에 와서 善德, 眞聖 두 女王에 관한 설화에도 산견되는 무속적 요소에서 우리는 불교와 유교 도입이전에 이미 고대국가의 통치권자를 神聖化하고, 그 領導力을 神通力으로 미화하는 原始宗教的 이념을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우리나라 고대 三國 중에 특히 신라의 佛敎公認은 불교적 이념으로 王族의 神聖化를 기하고 그 통치력의 이념적 합리화를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신라 法興王에서 眞德女王까지 中古時代의 왕족이름을 흔히 불교에서 취하고, 특히 眞興王을 轉輪聖王으로, 眞平王은 자신을 釋迦佛로 비유한 것이 그 좋은 예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은 동시에 신라지배계급의 권력독점을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政治理念을 확립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서, 신라 골품체제하의 엄격한 신분제를 불교적 因果應報說과 輪廻轉生思想으로 합리화하고, 또 花郎을 彌勒菩薩로 상징화하는 것이 그 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 唐나라 시대부터 심화되는 儒敎의 부흥과 禪佛敎의 대두가 몰고 온 정치, 사회적 개혁의 물결은 많은 在唐 新羅 留學徒를 통하여 통일신라에도 그 영향을 미쳐, 결국 신라지배층의 기본적 성격과 국가적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유교교육의 확산은 신라 지배층의 성격과 기능을 재래의 貴族 戰士型에서 점차 유교적 文士型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신라귀족의 사회적 형태도 武士型에서 文士型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전환의 이념적

기반은 대부분 유교사상이 제공하였다. 통일신라에서 가속화하는 당나라와의 교류는 唐으로부터 유교적 국가통치기구와 관료체제의 부분적 도입과 점진적 채택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신라 나름대로의 통치기구와 관료적 정비를 초래함으로써 이와 같은 변질에 더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변질에 수반하여 國家統治 理念도 종래의 來世的 불교이념에서 現世的 유교이념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현존 사료에서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잘 알려진 인물로는, 고대 三國 鼎立時代에 신라 영토확장을 적극 추진한 眞興王(534-576 CE)과 金庾信(595-673 CE)같은 戰士型 영도자가 前者에 속하고, 후일 통일신라의 極盛期에 적극적인 漢化政策으로 신라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루는 景德王(r.742-765 CE)이나, 이 정책의 재연을 추진한 景文(r.861-875 CE), 憲康(r.875-886) 兩 王은 기본적으로 文士型的 영도자였다는(이 기동, 1980, pp.171-176.) 사실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신라 귀족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花郎徒의 성격과 기능도 이러한 변화과정을 밝는다. 眞興王의 命을 받들어 伽倻를 평정한 화랑 斯多舍과 太宗武烈王과 뜻을 같이 하고 신라의 통일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화랑도출신 金庾信장군과 같은 前期 화랑의 대표적 戰士型 지도자에 반해, 新羅下代の 화랑도출신인 景文王과 憲康王은 근본적으로 文士型的 後期화랑도의 전형적 type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신라 귀족의 原型的 성격변화를 뒷받침하는 理念的 변화를 나타내는 사례도 當代의 사료에서 물론 散見된다. 신라의 領土膨脹期에 신라 王들을 보좌한 僧侶들의 理念에서 우리는 신라지배층의 戰士型 貴族性向을 강조하는 說法을 간접적으로 발견한다. 眞平王 30년(CE 608년)에 왕명으로 隋나라에 보내는 乞師表을 대작하고, 또 當代의 화랑도에게 世俗五戒를 작성해준 圓光(d. 630 CE)을 비롯하여, 大國統으로 전국 僧尼들의 규범과 국가적 통솔을 전담한 慈藏(眞德女王代, r. 647-654 CE)같은 신라 高僧의 거동에서 이러한 이념을 색출할 수 있다. 이들 승려는 護國과 護法을 동일시하는 설법으로 新羅王의 자문에 응하고, 특히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仁王經에 의거한 百座講會를 施行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행동과 이념에서뿐만이 아니고, 이들 승려가 대부분 신라 귀족가문의 출신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들이 창출한 화랑도의 훈련도 戰士型 귀족을 양성하는 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들을 지도한 교관도 주로 武官의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격의 僧官들이었다. 그러나 신라 下代의 變貌된 귀족樣相은 이와는 대조적이다. 신라 中代부터 이미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지만, 下代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변모가 더욱 확연히 부각된다. 下代의 신라 지배층의 전형적 성격과 기능은 대체로 官僚의 文士型으로 그 형태가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그 예로 新羅末葉을 장식한 소위 三崔(崔 致遠, 857-?; 崔 彥撝, 868-944; 崔 承祐)는 모두 唐 實貢科를 급제한 후 唐에서 仕官한 경력을 지닌 유교적 관료형 文士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후삼국시대를 전후하여 후삼국의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에 종사했다. (李 基東, 1980, pp. 251-265, 287-288, 296-303.) 이들이 길러낸 제자들도 적지 않은 수가 후일 신생 고려왕국의 건립에 이바지하는 유교적 문사형 귀족이었고, 그러므로 이들의 후예도 자연히 麗初 文臣官僚로 등장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다.

羅末의 이러한 대세를 理論와 行動으로 주도한 개혁파들에 관해서 看過해서는 아니될 한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이들이 신라 골품체제의 신분적 한계성의 돌파구를 대개 유교의 개혁적 政治理念에서 찾았다는 사실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은 대개 신라의 최고신분 계층인 성골가문의 출신보다도 흔히 羅末의 三崔와 같은 그 아래 신분계층인 육두품가문의 출신들이 많았다. [李 基白, “新羅 六頭品 研究,” *新羅 政治 社會史 研究*, (서울: 一潮閣, 1974), pp. 34-64.] 그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당나라의 관료제도, 특히 科擧를 통한 고급 관료의 선발과 入仕와 같은 儒敎的 出세制度에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매우 익숙해 있었다. 위의 三崔처럼 唐 관료제도의 그러한 혜택을 몸소 입은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고 단지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접하고도 그 우수성과 타당성에 매혹되어 개혁파의 대열에 동참한 자도 많았다. 신라 골품체제의 신분적 한계성이 병든 羅末사회를 치유하는데 필요한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들 개혁파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지극히 희소한 현존사료에서도 단편적으로나마 나타나는 羅末의 정치, 사회적 불만분자와 신라정부에서 개혁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좌절감과 절망감에서 官界를 등지고 은유생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反政府 대열에 가담한 當代의 우국지사들 가운데서 우리는 유교적 이념을 개혁의 지침으로 삼은 자들을 산견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는 골품체제의 근본적 한계성과 신라 지배층의 정치적 퇴폐성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왕조의 창출에 전념한 자들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개혁파들의 기여에 힘입어, 고려는 이미 그 왕조창설의 초반부터 유교적 통치이념으로 그 기반을 굳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非 新羅貴族界 신흥토착세력 가문출신 王建이 성공적으로 이끈 군사 coup de'tat가 탄생시킨 신생 왕국을 “景命” 즉 天命으로 이루어진 건국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역주 고려사, 1권, p. 16.) 따라서 그들이 내세운 고려의 첫 年號도 유교적 天命思想을 상징하는 “天授”이었다. (상동서, p.14) 주지하다시피, 이것은 모두 유교적 정치이념의 소산이다. 이와 같이, 신생왕국 고려는 유교적 天命論으로 그 건국을 정당화하였고, 그리함으로써 유교를 그 통치이념으로 삼을 지침을 세웠다. 이러한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 실질적으로 고려왕조의 정치이념으로 굳히게 하는 주동력은 물론 후일 고려전기에 등장하는 유교적 문신형 관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동력의 기틀을 잡아주는 것이 光宗의 치하에서 이루어지는 科擧의 성공적 도입이었다. [줄고, “高麗初 科擧制度의 導入에 관한 小考,” 韓國의 傳統과 變遷, (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pp. 260-282.] 과거제도의 정착은 바로 고려 초기의 정치이념을 유교로 총당하고, 그 귀족지배층을 유교적 문사형 관료로 지향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고려의 科擧制度 도입은 젊고 개혁 의욕이 강했던 光宗이 後周使臣의 일원으로 고려에 왔던 개혁적 행정관료형이고 젊은 文臣이었던 雙冀의 권고로 中國式 科擧 試驗制度를 958년 CE에 名實공히 直輸入한데서 비롯되었다.(姜希雄, 1973, pp.275-277.) 그러나 젊은 광종에게 이러한 식견과 소질을 배양시키고 필요한 기초지식을 먼저 구비하게 한 것은 當代의 우리나라 유교교육이며, 이 교육을 담당한 것은 동시대의 우리 儒敎文士들이었다. 예를 들면, 신라 末에 18 세로 入唐 留學하여 賓貢科에 급제한 후, 唐에서 仕官하며 중국에 오래 체류한 끝에 42 세로 귀국하여, 먼저 신라정부에서, 그 후에는 신생왕국 고려에서 文翰職을 누린 崔彦撝(최언취)가 태조 王建으로부터 처음 받은 職責이 太子師傅이었다. (고려사 92:9b-10b.) 卽位 전에 光宗이 아직 왕자로 있었을 때 崔彦撝로부터 직접이나 간접으로 訓誨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미 후삼국시기에 중앙뿐만 아니고 지방거점에서도 학교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것은 당대의 우리 사회에 유포된 유교사상의 폭과 넓이를 짐작하게 한다. [김 광수, “라말 려초의 지방학교 문제,” 韓國史研究, 7 (1972).]

그러나, 동시에 유의해야 할 것은 景宗 원년(CE 976년)에 始定한 고려의 첫 田柴科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고려초의 중앙관료가 모두 유교적 文武의 兩班體制로 정비되기까지는 그 후도 많은 시일이 필요하였다는 점이다. (註: 科擧導入後 始定된 이 CE 976년의 田柴科에서 고려의 중앙관료를 아직 4개의 服色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 4개 집단을 각각 다르게 差等을 둔 田과 柴로서 그들의 보수를 책정하여 분배하고 있다. 따라서 이 田柴科에는 文班, 武班, 雜班과 그리고 班名이 표기되어있지 않는 紫色服 집단 하나를 포함한 4 group로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다.) 당나라의 유교적 통치이념과 관료기구의 채택을 고려에서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것은 성종(r. 981-997 CE) 치하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완비한 것은 문종 30년(CE 1076년)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그러나 성종 이전에도, 유교적 관료체제로서는 아직 미비하나마, 벌써 신라시대의 골품적 정치사회 질서체제와는 실질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정치권력구도가 부각되고 있었고, 이 새로운 권력체제는 이미 유교적 사상에 기초를 둔 정치 사회적 이념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過去 귀족사회의 이념적 支柱이었던 불교사상이 벌써 되거되어, 고려 초의 지배층 귀족의 이념세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물론 아니었다. 중요하게 달라진 것은 그들 지배층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불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러한 지배층의 이념적 변화를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료가 고려사의 崔 承老 (최승로) 전기에 보인다. 성종 즉위 직후 上書한 時務策에서 崔 承老는 불교, 유교, 그리고 도교의 專業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교는 人間의 來生을 위한 것이고 유교는 現世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불교의 宗教的인 측면과 유교의 世俗的이고 비종교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一年中 4개월은 世俗的 (유교적) 政事와 宗教的 (불교적) 功德을 반반으로 兼行하고 다른 4개월은 오로지 政事만을 專行할 것을 성종에게 勸請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유교적 이념으로 파악하고 그 운영은 이에 입각한 政事 爲主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종이 최 승로의 이러한 제언을 어떻게 받아 들인가를 알려주는 단서는 그 후에 그를 곧 고려정부의 최고 직책 중의 하나인 門下侍郎 (성종 2년)과 이어서 門下守侍中으로 (성종 7년) 인명한 것에 나타난다. .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羅末麗初의 과도기에 일어나는 획기적 이념변화는 신라 中期까지 엮보이는 종래의 불교의존에서 下期의 유교의존의 형태로 점차 변천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변천의 결실은 고려 初에 가서야 나타나, 그때에 가도 유교가 불교를 완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양자가 당시의 중세사회를 이끄는 이념으로 서로 상호의존하는 양상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개혁적 불교이념으로 당시 대두한 선불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시간의 부족으로 이 논고에서는 그것을 후일로 미룰 수 밖에 없음을 애석하게 여긴다. 그리고 더욱이 이 논문을 미완성품으로 만드는 것은 羅末麗初의 도참 풍수지리설을 비롯한 도교, 무속 등의 초기 중세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념의 정치사회적 역할에 대한 검토의 삭제이다. 시간 관계상 후일에 기약함을 미안하게 느낀다.

시론적 결론:

끝으로, 위에서 언급한 諸般 事項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요점을 종합분석하여, 羅末麗初의 과도기에 재편성된 중세 사회질서체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결론을 이제 내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중세 정치사회질서체제의 형성과정과 라말 려초 (특히 고려 태조 왕 건의 시대를 중심으로 한) 과도기적 時代相과의 유기적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論考는 아직 미완성한 試論적 단계에 있으므로 최종적인 결론작성은 후일에 기약하고, 여기서는 다만 피상적인 몇 가지 점만 거론하고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경순왕 9년(CE 935년)에 일어난 신라의 멸망은 골품제도적 사회정치체제로부터 국가적 뒷받침을 소멸시켰다. 이렇게 국가적 보장이 없어진 상황에서 골품제가 부여한 신라 왕경 귀족의 특권은 그 정치체제와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로 인해 조성된 정치권력의 진공상태는 신라왕의 평화적 귀순으로 고려왕조가 큰 혼란없이 순조롭게 막아 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후삼국시대의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에 알맞은 새 권력구도와 이에 상응하는 사회질서체제를 순조롭게 재편성할 수 있는 왕조적 정통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비교적 평온한 전권교체와 질서체제의 이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밝혀두어야 할 것은 신라 골품체제의 구성요소로서의 지연성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라의 영토확장과 통일전쟁을 전후하여 이미 서서히 변질 되어가고 있었고, 그러한 변질은 궁극적으로 우리 전통사회 신분제도의 특수한 구성 요소인 地緣性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구성요소인 혈연성과 그 이념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전통사회의 질서체제하의 신분제도의 자생적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舊 新羅 골품사회 고유의 귀족성을 보장하는 권력의 분배를 새로운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다 폭넓고 광범위하게 보편화하는 과정이었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중세적 새로운 사회질서 체제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高麗 初의 성품(통칭 본관)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우리 전통사회의 정치질서체제와 신분제도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본질적 규명은 우리 전통사회의 力學的 권력구도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향적 신분변화와 동시에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상향적 신분변화와 밀접하고 유기적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골품제의 와해현상과 성품(보관)제도의 형성도 이러한 유기적 관계를 시사한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내재적으로 일어나는 정치, 사회, 문화적 변천의 재류에 흘러내리고 있는 이러한 유기관계는 우리 전통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규명하는데 주요한 것을 시사한다.

참고 문헌

- 姜 希雄, “고려 혜종조 王位繼承亂의 新 解釋” 韓國學譜, 제 7집 (1977, 여름).
- 姜 希雄, “高麗初 科擧制度의 導入에 관한 小考,” 韓國의 傳統과 變遷, (서울: 高麗 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 金 甲童,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90).
- 김 광수, “라말 러초의 지방학교 문제,” 韓國史研究, 7 (1972).

金杜珍, “了悟禪師 順之의 相論,” 韓國史論, 2 (1975).

金貞淑, “金周元 世系の 成立과 그 變遷” 白山學報, 28 (Jan., 1984).

金周成, “高麗初 清州地方의 豪族” 韓國史研究, 61-62 合輯.

武田幸男, 1966, 朝鮮學報 41.

三國史記, (東京: 學習院 東洋文化研究所, 1964).

李基東, “新羅 下代の 湓江鎮,” 新羅 骨品制 社會와 花郎徒, (서울: 한국연구소, 1980)

李基白, “新羅 六頭品 研究,” 新羅 政治 社會史 研究, (서울: 一潮閣, 1974).

朝鮮金石總攬, (京城: 朝鮮總督府, 1919) 上, 龍頭寺 幢竿記